

“안원장과 진심이 통해 아름다운 합의를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올해는 ‘안풍(안철수 바람)’이 기존 정치권의 뿌리를 흔들 정도로 거세게 불었다. ‘철수 나오면 조금 있다 영희 나오겠네’(홍준표), ‘병 걸리셨어요?’(박근혜) 등의 발언은 안풍에 대한 기성 정치권의 견제 심리를 드러낸 말로 회자된다. 지상파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한 출연자가 입에 달고 사는 ‘아, 안돼~’는 여러 핑계를 대며 탁상공론을 거듭하는 관료들을 비꼬는 말로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김연아



김진숙



홍준표



조광래

■ 국내 말말말

◇“이번 투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상 승리했다고 본다”=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8월24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난 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내 한미 FTA를 통과시키면 (기자)안정해 버리고 ‘아구통’을 한 대 날리기로 했다”=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11월15일 한나라당 출입기자들과 저녁을 먹으며 “친한 기자와 내기했는데 11월 안에 한미 FTA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내가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며.

◇“철수 나오면 조금 있다 영희 나오겠네”=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9월2일 충북 의원

◇“호남 말로 오만군데는 ‘여기저기’ 정도의 의미”=김황식 국무총리. 6월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오만군데 압력’ 발언에 대해.

◇“됐다. (우산) 치우라”=김황식 국무총리. 11월23일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권투 심판 자격증 주었더니 자기도 한 쪽 선수 편에 서서 상대 선수 패고 심판도 보셨다면 공정한가”=민동석 외교2차관. 한미FTA에 대해 법원 관사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트위터로 비판하면서.

◇“제가 안철수 원장을 비롯해 야권, 그리고 온 세상의 협찬을 얻었지 않았느냐, 마

“온 나라를 어깨에 짊어진 느낌” 김연아

“지금 가장 생각나는건 매운탕” 김진숙

연천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출마설에 대해.

◇“병 걸리셨어요?”=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9월7일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야권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 상승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안 원장과 서로 진심이 통해 정치권에 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합의를 했다”=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9월6일 안철수 원장-박 이사장 후보단일화 기자회견에서 안 원장이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한 데 대해.

◇“대권 도전 가망지도 않다. 사실 생각해 볼 여유도 없다”=안철수 원장. 9월7일 여의도 자택에서 나오던 중 기자들로부터 대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 신부는 성당, 스님은 법당, 목사는 예배당에 있어야 한다.”=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 11월25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안 원장의 멘토로 알려진 법륜 스님의 신당 추진설에 대해.

◇“야권 통합을 배고 누워 죽는 심정으로 통합을 원수하겠다”=민주당 손학규 대표. 12월12일 야권통합을 의결한 민주당 전당 대회를 마친 다음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막으로 언론의 협찬도 얻겠다”=박원순 서울시장. 시장 보궐선거 다음날인 10월27일 기자회견을 방문한 자리에서.

◇“무소속인 나는 쪽배에 불과하고 저쪽은 항공모함을 가졌었지만 흐르는 물은 거꾸로 올라가는 상황이니 결국 침몰한 것이다”=박원순 서울시장. 11월18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5년에서 10년이면 세상을 싹 바꿀 수 있다”=박원순 서울시장. 9월15일 서울시 장 출마를 위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서 물러나는 자리에서.

◇“총 2억원의 돈을 박명기 교수에게 지원했다. 정말 선의에 입각한 돈이었다”=과 노현 서울시교육감.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해 뒷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 8월2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석식 짚면 매뉴도 점차 사라질 듯. 짚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어까지 먹게 되니. 푸 하하”=북부지방법원 서기호 관사. 트위터에 정부의 SNS 검열을 비판하며.

◇“때리기까지 할 줄은 몰랐다”=박건찬 종로경찰서장. 지난 11월26일 광화문 한미



지난 10월 24일 박원순후보 캠프를 찾은 안철수 원장이 박원순 후보와 손을 맞잡고 있다.

FTA 반대 집회에서 시위대에 폭행당하고 나서.

◇“두렵다고 뒤꿈치를 뺀면 경찰이나. 총은 뭐러러 들고 다니느냐?”=조현오 경찰청장. 10월25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폭력배와 전정을 선포하며.

◇“뺨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 11월22일 한미FTA가 비준되고 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나는 바다 사나이이다. 몸이 완전히 회복된다면 다시 뱃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던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 지난 11월 4일 아주대병원 문을 나서면서.

◇“지금 현재 가장 생각나는 것은 매운탕”=김진숙 민주노동당 부산본부 지도위원. 지난 11월 10일 한진중공업 노사합의로 309일만에 크레인 고공농성을 풀고 내려 오면서.

◇“금융권은 과도한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버려야 한다”=김석동 금융위원장. 10월13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불평등과 실업 문제 등에 항의하는 미국의 반(反)월가 시

위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못난 고리대를 나와서 문제가 되는가”=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7월5일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자신의 회장 선임 과정과 관련된 ‘낙하산 논란’을 반박하며.

◇“흡족하다기보다 낙제는 아닌 것 같다”=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3월10일 서울 하얏트호텔서 열린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몇 점 정도 주겠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까지는 저쪽(애플)에서 고른 위치에서, 저쪽에서 정한 논리로 페널티를 먼저 줬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10월 앞으로 애플에 초강경 대응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온 나라를 내 어깨에 짊어진 듯한 느낌이였다”=김연아. 5월18일 스위스 로잔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브리핑에서 광장유치위원회 대표로 프리젠테이션을 한 뒤.

◇“조기 축구회 감독을 해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방식의 통보는 말이 안 된다”=조광래 전 축구대표팀 감독, 해임 통보를 받은 지 하루 뒤인 12월8일 해임 결정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연합뉴스

■ 지구촌 말말말

◇“우리는 99%다. 1%가 모든 것을 차지했다.”=금융기관의 탐욕과 부패, 사회적 불평등에 항의하며 9월부터 시위에 나선 미국의 ‘월가 점령’ 시위대가 외친 구호.

◇“모든 국민이 나를 사랑한다. 그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할 것이다.”=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 2월28일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사마 빈 라덴하네, 그는 죽었노라.”=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10월20일 카다피의 사망 소식을 듣고서.

◇“오사마 빈 라덴한테 물어보라.”=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12월8일 자신의 외교정책이 유약하다는 공화당의 비난에 발끈하며.

◇“그를 잡았다(We got him). 이제 정의가 실현됐다.”=



힐러리



스티브 잡스

힐러리 “왔노라, 보았노라, 죽었노라”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말 “오, 와우”

오바마 대통령. 5월1일 오사마 빈 라덴 사살 공식 발표하며.

◇“오, 와우”=애플의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나는 16살이다. 보통의 10대일 뿐이다. 다르지 않다.”=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손자 김한솔(16). 10월18일 보스니아의 국제학교에서 자신을 특별하게 취급하는 언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당국에 ‘몸값’ 지불한 느낌”=중국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 11월16일 시민들이 모은 성금으로 845만위안(약 15억원)을 보증을 명목으로 당국에 납부하고 나서.

◇“미국은 세계 경제에 기생충 같은 존재”=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 8월1일 한 포럼에서 미국이 엄청난 부채를 쌓아가면서 세계 금융을 위협하고 있다며 퍼부는 독설.

◇“나는 올해 75살이고, 비록 내가 야한(naughty) 남자인 건 하지만 두 달 동안 여자 33명을 상대하는 것은 30대에게도 너무 많다.”=베를루스코니 총리가 3월16일 33명의 여성과 섹스파티를 벌였다는 밀라노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우리는 함께 증오를 극복했다. 함께 개방과 관용, 공동체 의식을 끌어안자.”=엔스 스텔텐베르크 노르웨이 총리. 7월 발생한 노르웨이 연쇄 테러의 희생자 77인을 추모하는 의식에서.

◇“위키리크스 창립자 어산지는 황제였다.”=다니엘 돌사이트 위키리크스 대변인. 2월10일 위키리크스에 관한 얘기를 담은 책 출간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쥐어짜인 중산층(squeezed middle)”=옥스퍼드 영어사전 편찬자들이 11월 선정할 올해의 단어. /연합뉴스



구례군 구례군 의회

구례, 3대 3을

산, 물, 땅의 기운을 받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곳, 구례



지리산 노고단 설경



섬진강



지리산 온천